

##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 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권 해 수<sup>†</sup> 김 소 라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는 국내 성폭력 상담자들의 대리 외상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입 전략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 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는 11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폭력 상담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유사한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대인관계가 단절되거나 축소되고,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부부 성생활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 양육에서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예민해지는 등 관계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인간 존재의 파괴성 및 공격성에 회의감을 느끼고, 남성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존재로서의 여성과 동일시하고, 사회 안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사회 정의 및 가치관에서 심한 혼란을 겪는 등 인지 구조적인 영역에서 심각한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나 외상 상담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폭력 상담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일의 의미 발견, 피해자의 내면적 힘과 삶의 용기에 대한 경외감, 사회 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들을 국내 성폭력 상담계의 사회문화적인 특성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성폭력, 상담자, 대리 외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

<sup>†</sup> 교신저자 : 권해수,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E-mail : hskwon@kyci.or.kr, Tel : 02-2234-5055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전국에는 142개소의 성폭력상담소와 16개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의 성폭력 피해 생존자 자립 공동체가 전문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담관련 기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선도 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및 가정폭력쉼터 등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기 개입을 하고 있다(변혜정, 조중신, 현혜순, 2005). 그동안 학계 및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의료적, 제도적인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에 대한 행, 재정적인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성폭력 상담자들은 열악한 환경 조건 속에서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분노, 침체, 약함과 흔들림을 지켜보고 감정적인 측면을 섬세하게 다루는 등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들은 흥분과 깊은 만족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는 상태가 사생활에까지 침투되어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남성에 대한 적대감과 사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선악 및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관에서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혜정, 조중신, 2005).

그동안 아동기 성폭력, 친족성폭력 등의 외상 경험이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으나(권혜수, 이재창, 2003; 권희경, 장재홍, 2003; 배영미, 2002; 전영주, 2004; 채규만, 2004), 외상 경험이 있는 내담자와 상담하는 상담자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경험적 현상들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외상 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

에서 공감적인 태도로 끔찍한 외상 경험을 반복적으로 듣다보면 상담자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피곤해지며, 상담자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Campbell, 2002; Figley, 2002; Pearlman & Saakvitne, 1995). MaCann와 Pearlman(1990)은 외상 경험이 있는 내담자와 상담하는 상담자들에게서 내담자와 유사한 증상, 예를 들어 악몽, 두려움, 공포 등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리 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리 외상은 공감적 계약 관계에서 내담자의 외상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나타나는 상담자의 내적 경험의 변화를 뜻한다(MaCann & Pearlman, 1990). 즉, 대리 외상은 상담자가 오랜 시간동안 내담자의 외상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발생하는 것이며, 그 결과 상담자의 자아감, 영성, 세계관, 인간관계, 그리고 행동 등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Chrestman, 1999; Kassam-Adams, 1999). 이러한 변화는 상담자의 정체성, 기억 체계, 그리고 신념 체계의 인지도식에서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내담자의 외상 경험에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상담자가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그 결과 상담자의 심리적 기능 내부의 변형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상담자의 변화는 내담자의 경험과 유사하다는 것이다(Figley, 1995). 이러한 영향은 상담이 종결된 이후에도 몇 달 혹은 몇 년간 유지되기도 한다(Trippany, Kress, & Wilcoxon, 2004).

그러나 그동안 상담 과정 중에 상담자에게서 나타나는 경험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진(burnout), 역전이(countertransference), 이차적 트라우마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 등의 개념들이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기존의 개념들과 대리 외상을 차별화하여 이해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진은 다루기 어려운 내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결과로서, 심리적 외상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신뢰/통제 감정, 친밀감, 자존감 욕구 및 안전한 관계 등의 변화를 설명하지는 못한다(Rosenbloom, Pratt, & Pearlman, 1995). 또한 역전이는 내담자의 정서, 사고, 행동으로 야기된 상담자의 무의식적 갈등으로 상담 과정 중에 상담자가 경험하는 특별한 것으로, 외상 경험이 있는 내담자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서 상담 회기를 초월해서 상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Figley, 1995). 다시 말해서 소진은 만성적이고 복잡한 내담자 문제로 인해 상담자가 이차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역전이는 상담자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경험의 결과로 인해 내담자에게 나타나는 상담자의 정서적 반응이라고 한다면, 대리 외상은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내담자)의 외상 과거(사건)가 상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외상을 입은 내담자들과 상담하는 많은 상담자들이 대리 외상과 마찬가지로 소진 또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진은 정서적인 고갈의 결과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인 반면, 대리 외상은 초기 단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갑작스럽고 뜻밖인 증상의 발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진은 어떠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대리 외상은 외상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다(McCann & Pearlman, 1990). 역전이과 대리 외상은 그 차이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역전이가 상담 초기에 또는 상담 과정 중에 상담자가 경험하는 특별한 것이라면, 대리 외상은 상담 회기를 초월해서 영향을 미치며, 그러므로 상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차이점들은 대리 외상을 소진과 역전이의 개념으로부터 분리해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James & Gilliland, 2001).

한편, McCann와 Pearlman(1990)은 구성주의 자기 발달 이론(constructive self-development theory)에 근거하여 성폭력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대리 외상을 5가지 영역-자존감, 안전, 신뢰/의존, 힘/통제, 친밀감-으로 나눠 그 현상을 설명하였다. 외상 경험에 노출된 상담자는 때로 다른 사람들의 잔인함에 대해 듣게 된다. 그러다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괜찮다’는 상담자의 지각은 왜곡되고, 혼란스럽게 된다. 세상에는 악마가 있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고통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세상의 선함과 이상주의에 대한 상담자의 가치관은 산산이 부서진다. 상담자는 타인은 물론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감각마저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성폭행의 이야기와 사건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담자 자신의 안전에 대한 지각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자신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신념과 여성으로서의 취약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세 번째로, 더 이상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느낌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 측면(예, 나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가?)에서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

다. 그리하여 상담자가 타인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상담자는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한다. 뇌제, 힘/통제에 대한 느낌에서 심한 혼란을 겪는다. 자신의 느낌과 사고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강간 혹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처럼 상담자 또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능력(예, 나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마지막으로 친밀감 영역에서의 혼란이다. 자기 친밀감은 자기 스스로와 연결되는 감각이다(예,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 영역에서 혼란을 겪게 되면 상담자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게다가 상담자는 외상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상담자는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는 타인을 밀어내게 된다. 또한 상담자는 자기 일에서도 소외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을 둘러싼 사람로부터 자신을 멀리 하게 된다는 것이다.

Schauben과 Frazier(1995)는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하여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들과 상담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 5가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세 가지 주제가 공통적으로 드러났는데 주로 업무와 관련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경계 설정의 어려움, 학대와 관련된 내담자의 정서를 다루는 것의 어려움, 신뢰감 형성의 어려움, 상담 길이 조정의 어려움 등이었다. 다음으로 학대와 관련된 상담자 자신의 정서(분노, 슬픔, 두려움, 무기력, 무력감 등)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몇몇 상담자

들은 특히 자신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으로 신념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Steed와 Downing(1998)은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여자 상담자를 인터뷰하였다. 주로 상담 과정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들은 정서적인 영역(예를 들어, 분노, 고통, 좌절, 슬픔, 충격, 스트레스 등)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면, 복통 등의 신체적인 영역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2/3이상은 악몽에 시달리고, 지나치게 망상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을 위협받을까봐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타인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인을 신뢰하는 능력이 상실되고, 여성으로서의 취약성을 느끼며, 자아정체감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등 인지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외상 상담을 통하여 좀 더 분명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었고, 내담자 및 내담자가 가진 내면의 능력에 대해 재인식하는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Iliffe와 Steed(2000)는 가정폭력 상담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접을 실시한 결과, 대리 외상 현상들을 발견하였고, 특히 인지적인 스키마에서 큰 변화가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특히 안전감(세상은 그리 안전한 곳이 아니라 는 느낌), 세계관(힘과 통제 이슈에 대한 새로운 인식), 신뢰(사람들을 좀 더 경계하게 되는), 일반적인 파워 이슈에 대해서 각성되었다고 한다. 물론 상담 과정 중에 혹은 상담을 끝난 이후에도 줄곧 소진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충격 속에 휩싸여 있는 등의 증상도 보고되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 상담자들에게

서 파워 이슈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는 점이 특징 중의 하나였다.

Benatar(2000)은 성폭력 상담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대리 외상과 관련된 5가지 주제를 확인하였다. 상담자들은 세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이며, 염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으며, 안전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상담자 개인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상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Campbell(2002)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인적 자원들 또한 피해자가 경험하는 것을 마치 거울로 비추듯이 그대로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존 피해자 연구에서 밝혀진 분노, 고통, 희망, 자유에 대한 상실, 사회의 선악에 대한 느낌, 정체감 혼란 등을 상담자 또한 그대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외상 경험을 듣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겪는 고통들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일차적 피해자로, 가족, 친구, 법률가, 상담자, 연구자들을 이차적 피해자로 개념화하였다.

한편, 외상 경험이 있는 내담자와 상담하는 모든 상담자에게서 앞서 설명한 대리외상의 실체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선행 연구들은 대리외상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 조사하였다. 주된 요소들로는, 과거 외상 경험, 심리적 안녕, 사회적 지지, 연령, 성별, 교육 정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치 등이 언급되었다. 과거 외상 경험이 있는 상담자의 경우, 내담자의 외상 경험에 노출될 때 과거 외상 기억이 자극되어

대리 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Resick, 2000; Rosenthal, 2000; Son, Singer, & Anglin, 1998; Van der Kolk, McFarlane, & Weisaeth, 1996; Brewin, Andrews, & Valentine, 2000). 즉,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외상 경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회복이 없는 경우, 외상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과거의 경험을 재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Schauben과 Frazier(1995) 등은 상담자의 외상 경험 그 자체는 대리 외상과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Benatar, 2000; Follette, Polusny, & Milbeck, 1994; Ghahramanlou & Brodbeck, 2000; Kassam-Adams, 1999). 오히려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공감 정도와 상담자의 성격이 대리 외상 경험과 관계가 깊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가족 중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불안, 우울 장애를 경험했던 상담자의 경우에는 대리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며(Lugris, 2000; Van der Kolk et al., 1996), 사회적 지지 자원이 충분한 경우에는 외상 사건 노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ewin et al., 2000; Lugris, 2000).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삶의 경험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잘 다루어서 대리 외상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nsel & Lin, 1998; Adams, Matto, & Harrington, 2001).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대리외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rady, Guy, Poelstra, & Brokaw, 1999; Brewin et al., 2000; Resick, 2000), 교육 정도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어서는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열악한 환경일수록 외상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고, 따라서 대리외상에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Resick,

2000). 그리고 상담 경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초심상담자일 때 대리 외상을 가장 많이 경험하다가 이후 경력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Adams et al., 2001; Pearlman & MacJan, 1995).

이처럼 성폭력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대리 외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국내 상담자들은 성폭력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질적 연구들이 성폭력 상담자들의 경험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맥락들을 고려해볼 때 국내 상담자들의 대리 외상 경험이 외국 상담자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상담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상담자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 상담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성폭력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대리 외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후 대처해나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폭력 상담자들이 행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며, 경험의 실체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채택하였다. FGI는 주제와 관련하여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

성원을 중심으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며, 연구자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여 단기간에 참여자들로부터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양의 집중적인 대화를 유도해내는 방법이다(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0; 윤택림, 2004; 이광숙, 2001). 그룹 토론이라는 형식을 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장점은 연구자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내면 경험, 감정 및 신념을 이끌어낼 수 있고, 경험의 폭과 주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탐색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윤택림, 2004). 그리고 인터뷰 자료는 질적인 내용분석을 통하여 의미가 재구성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상담자들의 생생한 경험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리 외상의 실체를 세분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자

주제와 관련하여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성폭력 관련 기관에서 상담자로 근무하고 있는 11명의 상담자를 선정하였다. 서울 시내 성폭력 관련 기관 5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포커스 그룹에 지원할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자원자에 한하여 재차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최종 동의를 받았으며, 인터뷰에 대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성폭력 상담 관련 기관의 특성상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사건 지원(예, 의료적

지원, 법률적 지원, 입소 상담 등)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일대일 면접 형태의 심리 상담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담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포커스 그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자의 나이, 전공배경, 상담 경력, 학력 등을 고려하여 2개의 포커스 그룹에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포커스 그룹 참여자들의 주요 인적 사항들을 살펴보면, 성별은 모두 여성이며, 나이는 24세부터 53세(평균 36세), 상담 경력은 2년에서 13년(평균 4.6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1명은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2명은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었고, 5명은 석사학위를 소지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대졸이었다. 전공 배경은 상담 5명, 사회복지 2명, 여성학 3명, 기타 1명 등으로 다양하였다. 참여자들의 이론적 경향은 7명은 절충주의적 접근 방식이며, 나머지 4명은 여성주의적 접근 방식이었다.

자료 수집

포커스 그룹의 경우 참여 인원이 너무 많으면 사회자가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나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에 인원이 작을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기가 어렵고, 참가자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Morgan & Scannell, 1998). 김성재 등(2000)은 참여자들 간에 서로 경쟁적이 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토의가 자극되어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섯 명에서 열 명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 그룹당 6명을 단위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였다.

한편, 포커스 그룹의 수는 전형적으로 3개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크기는 주제가 중간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연구 참여자가 중간 정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정하는 수이다(Morgan & Scannell, 1998). 본 연구에

표 1. 포커스그룹 참여자 주요 인적 사항

연구대상자	성별	연령	학력/전공	상담경력	이론적 경향
1	여자	38	박사/상담	8년	절충주의적
2	여자	53	박사과정/상담	13년	절충주의적
3	여자	45	석사/사회복지	2년	절충주의적
4	여자	43	박사수료/상담	5년	절충주의적
5	여자	41	석사/사회복지	4년	절충주의적
6	여자	26	석사/여성학	2년	여성주의적
7	여자	29	석사/상담	3년	절충주의적
8	여자	25	학사/여성학	2년	여성주의적
9	여자	39	석사/상담	5년	절충주의적
10	여자	35	학사/여성학	3년	여성주의적
11	여자	30	학사/사회학	4년	여성주의적

서도 3개 그룹으로 시작하였으나 이미 두 번째 그룹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첫 번째 그룹과 유사한 것이 많았고, 두 그룹만으로도 이미 '이론적 주제'들이 포화되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두 개의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였다. 각 그룹 당 6명, 총 12명으로 예정되었으나, 참여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총 11명이 참여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상담소의 집단상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책상에서 면담을 시작하였다. 서로에 대한 소개와 토론의 규칙을 설명한 후 시작하였다. 면접 시간은 120분 정도이었으며, 본 연구의 책임 연구자가 인터뷰 사회를 맡았다. 사회자는 주제에 적합한 내용이 토의되도록 연구 목적에 맞는 좀 더 자세한 단서를 제공하면서 토의를 이끌어내었다. 가능한 참여자들의 토론 과정에 끼어들지 않고 토론의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자료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의 분석, 보고 형식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ruger(1998)가 제시하는 분석 과정, 즉 연구 시작 시기, 포커스 그룹 도중, 포커스 그룹 직후, 전체 포커스 그룹 종료 후 등 4단계의 지침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연구시작 시기)에서는 포커스 그룹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진이 모여서 역할을 분담하고 중점적으로 다룰 질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2단계(포커스 그룹 도중)에서는 연구진이 모두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여 주의 깊게 경청하고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토록 하였고, 확인을 통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3단계(포커스 그룹 직후)에서는 연구진이 토론 중 중요한 주제로 인식한 것, 기대와 달랐던 내용, 특히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확인 사항이 있는 경우 참여자들과의 이메일 전송을 통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4단계(전체 포커스 그룹 종료 후)에서는 녹음한 내용을 즉시 전사하여 내용 분석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상의 단계를 거친 후 Morgan과 Scannell (1998)이 제시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읽었다. 문장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2명의 연구자가 합의하여 주요 개념을 목록화하고 초보적 수준에서 개요화하였다. 연구에 적합한 정보를 드러내는 것과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정보 조각, 즉 범주들을 정의할 기초로 쓰여질 문장과 문단 또는 절을 부호하였다. 모든 부호화된 원자료는 각각 서로 잘 어울리는가, 그리고 범주 간에 차이는 뚜렷하고 분명한가라는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를 염두에 두고 의미의 유사성과 구별성에 맞게 주제와 범주로 묶는 작업을 하였다. 특히 이 단계에서 유사한 주제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범주들이 상호 배타적이고 다른 주제와 구분되도록 하였다. 범주화 작업을 할 때에는 연구 목적에 비추어 해석을 시도하고 결과를 정의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에 능숙한 상담전문가 2

인(박사 1인, 박사과정 1인)과 성폭력 상담자 1인(석사, 성폭력 상담경력 10년)을 감수자로 참여시켰다. 감수자들은 원자료의 의미가 중심 개념으로 적절하게 분류되었는지 검토하고, 부적절하게 된 경우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감수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원자료의 의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자들간, 그리고 연구자들과 감수자들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범주를 분류하고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분석 결과를 포커스 그룹 참여자 11인에게 보여 자신들의 경험이 잘 기술되었는지 확인하였고 참여자들이 제시한 피드백을 중심으로 범주들을 재정리하였다.

## 결 과

국내 성폭력 상담자 11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Morgan과 Scannell(1998)이 제시한 방식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자주 겪는 경험의 내용, 이러한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나타나는 관계 영역 및 인지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상담자의 대처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영역과 그에 따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용의 실체

#### 피해자와 유사한 신체적 증상 경험

성폭력 상담자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유사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 모두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상담이 끝난 후 두통이 심해지거나 몸살이 나는 것, 알레르기 반응 등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증상으로 악몽[혼란스러운 꿈], 목이 빠근하고 긴장되는 것, 여성 질환, 그리고 상담이 끝난 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멍해지면서 온 몸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되는 것 등을 호소하였다. 특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정서적으로도 둔해지고, 무미건조해지며, 일상적인 일들을 귀찮게 느끼는 자신의 모습 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 날은 잠도 이상하게 설쳐요. 숙면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가는 거.. 꿈도 막 이랬다 저랬다 혼란스럽게 왔다갔다하고.(참여자 10, 35세, 상담경력 3년)

전화로 피해상황을 전해듣다보면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나 봐요. 귀 밑으로 해서 턱까지 여기가 너무 아프면서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 있죠. 여기[턱의 움직임]가 자연스럽게 안 되면서... 여기도 아마 힘을 주나보죠... 그래서 여기가 막 아프면서 힘이 드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긴장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 일부분이 긴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2, 53세, 상담경력 13년)

한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같은 사무실

에서 근무하는 상담자들 모두 하나같이 자궁에 뭐가 생겨가지고... 다 자궁에 뭐가 생겨서 수술을 하거나 떼어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끼리 한 얘기는 하지만 너무 그런 주제[성폭력 피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나...(참여자 5, 41세, 상담경력 4년)

그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분리[피해자의 상황과 상담자의 일상]를 하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그런 날은 집중도 안돼요... 백일몽이죠.. 백일몽.. 멍한 것도 아니면서 머리는 터질 것 같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도 안되는 생각들만 이어지고... 사실 그런 날은 식욕도 없어요. 식구들도 귀찮고...(참여자 3, 45세, 상담경력 2년)

### 분노 경험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정서는 분노로 파악되었다. 이때 상담자들이 말하는 분노의 대상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포함되며, 가해자에 대한 분노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노가 더 많이 보고된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즉,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 역시 느끼지만, 무력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내담자, 분노 감정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내담자의 모습을 보면서 상담자가 더 많은 분노를 느끼고 그런 자신으로 인하여 더 고통스럽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담자는 실제 내담자가 느끼는 분노보다 더 큰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노는 다른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피해자로 자처하는 내담자[심리적으로 공감에 되지 않는 내담자], 여자라는 이유로 딸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피해자의 보호자로 인해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들... 처음에는 대부분 전화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느껴야 될 화, 분노를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참여자 8, 25세, 상담경력 2년)

피해 상황을 듣다보면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공감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내 안에서 막 뒤엉키면서... 그 사람한테도 화가 나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참여자 4, 43세, 상담경력 5년)

같은 여성으로서 딸이 그렇게 되었을 때 엄마의 그 태도...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남성 위주예요. 그냥 당연한 듯이...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 너는 죽을 때까지 입 닫고 있어... 이렇게 되면 진짜 화가 나는 거죠.(참여자 6, 26세, 상담경력 2년)

듣고 있다 보면 내가 짓밟힌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보기도 참 어이없이 당했다... 그런 사례를 보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참여자 6, 26세, 상담경력 2년)

[상담 중에] 피해자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단죄를 하죠... 복수의례를 치르는 거죠... 피해자한테도 치료적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분노... 나도 가해자한테 화난 감정이 있잖아요.(참여자 10, 35세, 상담경력 3년)

#### 무력감[회의감, 자괴감(자신에 대한 분노)]

많은 초보 상담자들이 그러하듯이 사명감과 열정으로 상담에 임했던 상담자들은 점차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상담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뿐만 아니라 법적인 지원도 함께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자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 심각한 무력감을 겪게 된다. 즉, 성폭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재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담자가 미리 대비하거나 손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상담자를 무력하게 만들고, 상담자로서의 자질(내가 과연 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은 재판 과정에 매달리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 승소하는 판례를 만들어야 무력감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재판에서 승소하여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안심을 주는 것이지만, 상담자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상의 정의와 질서에 대해 확인을 받게 된다. 이는 선행연구들에게 나타난 통제력(control)의 개념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의 안전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에게도 중요하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확신을, 그리고 상담자의 경우에는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재판의 승소인 것이다. 이 때문에 성폭력 상담자들 중에는 심각한 수준으로 재판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요새는... 피해자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든 좀 무마시키려는... 축소시키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안 되는데 싶은... 좀 그런 것도 있어요.(참여자 4, 43세, 상담경력 5년)

자괴감이나 무력감... 과도한 책임감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참여자 2, 53세, 상담경력 13년)

뭔가 해결해줘야 할 것 같은데... 못했다는 부담감도 있고... 회의감도 있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그런 자신한테 화가 나고 회의감이 많이 들죠.(참여자 10, 35세, 상담경력 3년)

내담자의 문제에서 끝나야 하는데... 내담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러면서 무력감이 오는 거잖아요.(참여자 11, 30세, 상담경력 4년)

#### 내담자와 거리두기(철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2차, 3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반복

적으로 자신의 피해 상황을 진술한다는 것은 피해의 재경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상담자의 경우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이야기는 사실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들이 반복될 때 상담자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담자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즉,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내담자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상담자의 이러한 태도는 내담자로 하여금 지나친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사례들을 접하면서 상담자들은 자신들의 태도로 인해 내담자가 사건 해결에 지나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담자의 기대는 오히려 상담자로 하여금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하여 내담자에 대한 지원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담자의 기대 조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담자와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그냥 일이고 사건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하나의 사건이지... 그래... 그냥 사건이야... (참여자 5, 41세, 상담경력 4년)

나는 너무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약간 철수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감정이 들어가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좀 막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참여자 2, 53세, 상담경력 13년)

아주 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게 있고요... 저도 굉장히 좀 사무적으로 거리감을 두는 타입이에요... 그렇게 꼭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저는 사건으로 많이 인식하려고 해요.(참여자 3, 45세, 상담경력 2년)

### 내담자와 동일시

참가자들이 모두 여성이었고, 또한 이제까지의 피해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상담자들은 같은 여성으로서 내담자와 동일시를 하고 있었다. 즉, 여성으로서의 취약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내담자의 피해 상황을 들었을 때 같은 여자로서 상담자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에게 더 몰입하게 하는, 동일시하게 하는 이유가 된 것이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가 진짜 같은 여성으로서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진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 내가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현실이잖아요.(참여자 8, 25세, 상담경력 2년)

내담자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나도 같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정말 내 문제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뭔가 짓밟힌 느낌...(참여자 5, 41세, 상담경력 4년)

피해자가 정말 남자였더라도... 내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참여자 9,

39세, 상담경력 5년)

**공허함**

상담자들이 느끼는 또 하나의 공통적인 정서는 상담이 끝난 후의 공허함으로 나타났다. 내담자가 쏟아내듯이 이야기하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듣고 나면 상담 장면에서 있었던 내담자처럼 상담자 또한 허전하고 공허하며,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참가자들은 말했다. 이와 같은 정서를 느낄 때 상담자들은 가까운 친구나 동료들을 찾아서 특별한 주제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술, 좋아하는 음식(예, 초콜릿) 등을 찾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표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변했다고... 굉장히 말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엄마 같지 않아 이러더라고요.(참여자 3, 45세, 상담경력 2년)

내담자가 떠나고 나면 내가 허해서... 허공을 떠다닌다는 느낌을 받아요... 전화를 해서 막 얘기를 해요.(참여자 9, 39세, 상담경력 5년)

**외상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나타난 대인관계 영역의 변화**

**대인관계 영역의 축소 및 단절**

과거와는 달리 대인관계의 경계가 수정되고, 관계의 영역이 축소되거나 혹은 단절되어 만나는 사람이 적다는 것도 성폭력 상담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밀착된 관계 혹은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것을 추구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서로 한 발짝 물러나서 다소 표면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이것 또한 하나의 관계라고 인정하는 식으로 대인관계의 경계가 수정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가깝게는 가족들과의 갈등이 증폭되어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타인에 대한 의심과 경계의 수준이 높아져서 새로운 사람을 거의 사귀지 못하였고, 심지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교류가 거의 없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혹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도 참가자들이 하고 있는 일에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 관계를 피하게 된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 일에 종사하면서 짜증이 늘고 공격적인 행동이 많아졌으며, 항상 분노 상태가 지속되어 언제든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에 가까운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견도 볼 수 있었다.

물리적으로도 많이 여유가 없고... 스스로도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나를 화제에 올리는 게 싫어요... 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 안 시키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참여자 1, 38세, 상담경력 8년)

수첩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 활동하고 관계있는 사람들 명단만 짝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서 영화 한 편 보자고 말을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 일이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달리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참여자 2, 53세, 상담경력 13년)

**부부 성생활의 어려움**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만의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 성생활의 어려움이다. 전혀 성욕을 느낄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으며, 심지어 이혼을 고려해 볼 정도로 부부 성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또한 부부관계 시에도 내담자로부터 들었던 피해 상황이 떠올라 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남편에게 투사되어 남편을 대하기가 불편해지고 다가오는 것조차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 성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좀 심각할 정도로... 이게 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활동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실제로 1년 동안 관계를 갖지 못했다는지... 이혼까지 고려해 볼 정도로 성적인 관계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있고...(참여자 5, 41세, 상담경력 4년)

마음 아픈 사례를 접하고 집에 가서 남편을 보면... 그냥 싫고 다가오면 몸이 경직되는 것 같고... 관계를 하는 중에도 머릿속으로는 사례가 막 돌아가죠... 욕구도 없을뿐더러 딴 생각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10, 35세, 상담경력 3년)

**자녀 양육 시 성적인 자극에 대한 예민함**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은 사소한 단서에도 많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들다고 보고하였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빠와

여동생, 또는 아버지와 딸, 친척 간의 관계와 같은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혹시 성적인 자극이 오고 가는 건 아닌지 의심부터 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에서 비하감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한다. 또한 내 딸에게는 성폭력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 딸도 당할 수 있으므로 혹시 그렇다면 잘 극복하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도 이 일을 하면서 겪게 된 변화로 나타났다.

큰 애(남자)가 작은 애(여자)를 이쁘다고 안아줘도 혹시나...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유심히 보게 되고...(참여자 10, 35세, 상담경력 3년)

사춘하고 있을 때... 사실 애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가 염려가 되니까 안할 수도 없고... 둘이 같이 있을 때 내가 몇 번을 들여다보는지 몰라요... 한 두 번은 알게 가더라도 나머지는 몰래 가서 보고 오고... 정말 그럴 때는 비하감 느낀다니까요.(참여자 5, 41세, 상담경력 4년)

딸이 있어서 이쁘고 귀여운 것도 있지만 정말 시집갈 때까지 아무런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참여자 1, 38세, 상담경력 8년)

**외상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나타난 인지구조의 변화**

**인간 존재의 파괴성 및 공격성에 대한 회의**  
피해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인지구조에 변화

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파괴성, 공격성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가해자를 향해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이렇게까지 인간이 할 수 있구나...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게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이래야 돼... 이런 게 좀 강했었는데 그것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참여자 7, 29세, 상담경력 3년)

#### 남성에 대한 분노감, 적대감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해자가 일반화되어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투사된다거나 또는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아버지 또는 남편에게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투사되면서 서로의 관계가 악화된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이제 남자들은 너무 미숙해 보이고... 니네가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니네들이 뻔하지 뭐...(참여자 11, 30세, 상담경력 4년)

남자[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직접적으로 내가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었으니까... 가장 가까운 남성한테... 나에게 압박을 주는 남성한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참여자 4, 43세, 상담경력 5년)

#### 사회적으로 취약한 존재로서의 여성

여성에 대한 상담자들의 관점은 ‘취약한 존재로서의 여성’으로 귀결된다. 이는 피해를 당하는 이유가 ‘조건적’이지 않고 무차별적이며,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며, 자신의 잘못된 것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피해자들의 모습 속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이라는 현실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말... 취약하고... 그냥 힘없는 약자를 처참하게 짓밟은... 그런 사회 안에 있는 걸 여실히 보게 되죠..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고... 나도 같은 여성의 입장이고... 여자로 태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참여자 7, 29세, 상담경력 3년)

#### 사회 정의 및 가치관에 대한 혼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안전하고 신뢰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피해 경험이 단순히 피해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며 사회 안전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동시에 상담자는 소송 과정에서 상처 입은 피해자를 봄으로써 사회 정의, 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즉,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상담자의 기존의 가치관은 재판과정에서 사회정의가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면서 혼란을 겪게

된다. 혹여 재판에 승소한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를 겪는 피해자를 보면서 법의 불합리성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지, 과연 사회정의는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면서 상담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삶이 그저... 전반적으로 그냥 많이 우울한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즐겁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고... 그게 놀랍고 충격적이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참여자 2, 53세, 상담경력 13년)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가... 애꿎은 피해자만 상처받고... 사회정의, 법, 질서 이런 게 뭐가... 갑자기 혼돈상태에 빠지는...(참여자 3, 45세, 상담경력 2년)

### 세상에 대한 실망감

내담자의 피해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상담자는 자신이 그 피해현장의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 순간 상담자의 삶은 없어지고 상담자의 삶 자체가 파괴되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경험이 반복되면서 상담자는 신에 대해 원망을 하게 되는 등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 전체에 대한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 같은... 내 삶이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참여자 5, 41세, 상담경력 4년)

### 대리 외상에 대한 대처 방식

성폭력 상담자들은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그리고 대인관계 영역 등에서 심각한 변화를 겪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러한 변화들에 대처하는 적응 기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처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종교에 귀의, 피해자의 변화, 사회운동, 일의 의미 발견.

### 종교에 귀의(영적인 측면)

상담자의 신앙은 상담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방식이 옳다는 확신을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정당성을 얻는 것이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들으면.. 내가 맞게 살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받은 만큼 나도 사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참여자 2, 53세, 상담경력 13년)

내면적으로 나를 채우려는 노력을 하고... 힘든 과정을 거칠 때마다 그것이 인간으로 인한 힘듦이 아니라 주어지는... 그런 힘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제 힘이 아니라...(참여자 4, 43세, 상담경력 5년)

### 피해자의 내면적 힘과 삶의 용기에 대한 경외감

상담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면서 양 극에 위치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즉, 가해자를 보면서도 가장 악한 인간의 모습에 실

망을 하게 되지만, 반면 힘겹게 치유 과정을 밟아가는 피해자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기, 삶에 대한 의지를 보며 감동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내담자의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감동과 기쁨을 통해 상담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날 수 있다.

저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올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내담자를 보는 맛...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울지만.. 울음 속에서 그 얼굴이 환해지는 거 보면서... 저 힘에 내가 계속 상담하는 거다...(참여자 1, 38세, 상담경력 8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려고 하는 용기..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참여자 9, 39세, 상담경력 5년)

이제 다시 한 번 살아보려고 그 과정... 상담 과정 자체가 진지한... 이런 거를 보고 저도 또 성장해 가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7, 29세, 상담경력 3년)

#### 사회운동에의 참여

상담자는 피해자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집단 무의식의 문제이며 사회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자의 인식은 상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특히 승소하는 판례를 제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서 상담자는 과도하게 재판 과정에 매달리기도 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고.. 집단 무의식이고... 사회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눈에 띄니까... 고쳐가는 운동을 하게 촉발을 시키잖아요... 송사에 한번 얽히면 그거 못 떠나요.(참여자 11, 30세, 상담경력 4년).

#### 일의 의미 발견

상담자는 이 일을 통해 먼저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일을 지속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해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일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상담자도 있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행복하게 살아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부채감을 덜기 위해 이 일에 종사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내담자가 아닌 자신이 성장하는 경험을 했다는 상담자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들 속에서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성장, 성숙하려고 노력하는 상담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생각해 보면 보살피줌으로써 내가 더 행복한 거.. 보살피 주는 성향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참여자 2, 53세, 상담경력 13년)

정말.. 인간적으로 내 자신의 문제와 함께 성장해 가는 파트너로서...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뭔가 삶을... 거기에 가치가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롭다...(참여자 5, 41세, 상담경력 4년)

사회적 미안함...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굉장히 편안한 조건이잖아요... 그렇게 살

기에는 내가 너무 비양심적이니까... 죄책감도 약간 느껴요.(참여자 11, 30세, 상담경력 4년)

##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성폭력 상담자들의 대리 외상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총 11명의 성폭력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Morgan과 Scannell (1998)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상담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유사한 신체적 증상 및 여러 형태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대인관계가 단절되거나 축소되고,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부부 성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 양육에서 지나치게 성적 자기에 예민해지는 등 관계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인간 존재의 파괴성 및 공격성에 회의를 느끼고, 남성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존재로서의 여성과 동일시하고, 사회 안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무엇보다 사회 정의 및 가치관에서 심한 혼란을 겪는 등 인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변화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대리 외상의 경험적 실체를 주장한 선행연구의 결과들(Benatar, 2000; Campbell, 2002; Clemans, 2004; Iliffe & Steed, 2000; McCann & Pearlman, 1990)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외국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많은 성폭력 상담자들이 상담 과정 및 일상생활에서 대리 외상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대리 외상은 외상 상담 과정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Adams et al., 2001; Benatar, 2000; Brewin et al., 2000; Ensel & Lin, 1998; Lugris, 2000; Resick, 2000)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리 외상은 내담자의 외상 경험과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예를 들어, 상담자의 외상 경험, 연령, 상담자의 경력, 훈련 수준,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지지 등)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 실체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대리 외상과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상담자들의 경험하는 대리 외상은 주로 경험하는 신체적인 증상과 정서적인 측면(예, 분노, 무기력, 좌절감, 공허감 등)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Compell, 2002; Iliffe & Steed, 2000; Steed & Downing, 1998)에서도 대리 외상의 주요한 정서로서 분노를 다루고 있지만, 국내 성폭력 상담자들에게서 나타난 분노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무력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내담자, 분노 감정을 표현하는 못하는 내담자, 그리고 침묵만을 강요하는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분노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상담자들이 느끼는 분노 감정은 내담자에 대한 직접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순결 이데올로기로 여성을 통제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문제 제기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으로 급히 치환해서 사건을 숨기는 것이 일상화된 현실에 대한 분

노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 상담자들은 외상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플래시백, 악몽, 강박적인 사고 등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무엇보다 신체적인 증상으로 산부인과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기혼자의 경우 부부성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는 국내 성폭력 상담자들에게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36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이것이 다른 성폭력 상담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폭력 상담자들이 호소하는 신체적인 증상은 상담 경력이 쌓일수록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계속해서 외상 사건에 노출됨으로써 둔감해졌을 수도 있고, 혹은 나름대로 효과적인 대처 전략들을 통하여 외상의 부정적 영향을 제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의 상담 경력과 대리 외상의 내용 및 수준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상담자를 대상으로 상담 과정 중에 경험하는 소진을 다룬 연구들에서도(백경희, 2004; 윤부성, 2000; 최윤미, 양난미, 이지연, 2002; 윤희미, 2005), 초심상담자일수록 신체적인 증상, 부정적 정서, 무의미감, 회의감 등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대리 외상과 소진 간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소진을 설명하는 핵심어들은 피로감, 좌절감, 일로부터의 거리감, 스트레스, 정신적 소모감과 무력감, 절망감, 냉소적 태도 등으로서(Skovholt, 2001), 인간관 및 세계관 등에서의 인지적인 변화까지 동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소진과 대리 외상은 명료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폭력 상담자들이 외상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대인관계 영역 및 인지구조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장, 단기적인 후유증으로 자주 언급된 내용으로(공수자, 이정숙, 2004; 전영주, 2004), 외상 경험을 듣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Chrestman, 1999; Figley, 1995; MnCann & Pearlman, 1990; Kassam-Adams, 1999)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 외상의 실체를 밝히면서 국내 상담자들은 기존 외국 문헌에서 제시되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리 외상을 경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국내 성폭력 상담자 양성 과정의 문제점과 열악한 작업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상담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현행법상 64시간의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 교육만 이수하면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상담소의 열악한 재정 문제 때문에 전문적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제반 교육 프로그램이나 슈퍼비전 등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변혜정, 조중신, 현혜순, 2005). 상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피해자를 상담하다보니 상담자의 미해결된 개인적 이슈 혹은 상담자로서의 자질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상담 과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대리 외상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성폭력 상담자들은 외상 내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상담 작업 환경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 전략들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든 전문적인 차원이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전략들은 무엇보다 자신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높은 자각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상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처 전략과 예방 전략들을 명료화한다면 대리 외상에 대한 상담자의 취약성을 예방하거나 혹은 이후의 상담자 보수 교육 및 슈퍼비전 등에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대리 외상에 대한 중단적인 연구가 이러한 이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안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들은 외상 상담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상담자들은 외상 상담 과정에서 일의 의미 발견, 내담자의 내면적 힘과 삶의 용기에 대한 경외감, 사회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재의 의미, 영성, 세계관, 내담자에 대한 재평가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기존 대리 외상의 개념은 상담자에게서 나타나는 인지구조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언급하는 데, 외상 상담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까지 포괄하기에는 개념적인 틀로서 부적절한 것 같다. 그러므로 향후 외상 상담이 상담자에게 미친 긍정적인 효과들은 대리 현상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틀로서 접근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 외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시도에서 이루어진 연구였지만 다음과 같은 많은 한계점

을 가지고 있다. 먼저,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다. 물론 질적 연구에서 허용 가능한 크기이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11명이 전체 성폭력 상담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서울 시내 5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원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무선회된 표집 방법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통제 집단도 없이 진행된 연구였기 때문에 외상 경험이 거의 없는 내담자를 주로 상담하는 상담자와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여성 상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이었기 때문에 남성 상담자에게 일반화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연구 참여자들이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하기 이전의 본인의 신념과 기능 수준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성폭력상담 실무 경력이 4.8년 이상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들의 기억 회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폭력상담소에서 일을 해왔으므로 그 과정 중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해결된 개인적인 이슈와 대리 외상으로 인한 영향을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두 개념 간에 서로 중첩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어떤 상담자의 경우에는 슈퍼비전이나 교육 분석 등을 통해 자신의 미해결된 이슈와 대리 외상으로 인한 결과를 잘 구분하고 있으나, 어떤 상담자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상담자의 개인적인 학대 경험과 내담자의 외상 사건간의 상호작용이 대리 외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 외상이 개인적인 삶과 전문가로서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광범위한 자료들을 제공하여 대리 외상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본 현상에 대한 광의의 개념화가 필요하며, 이는 후속 연구의 좋은 주제가 될 것이다. 향후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심리적 외상 상담 영역이 확대될수록 국내의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대리 외상을 경험하는 상담자들에게 필요한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수자, 이정숙 (2004).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3(1), 51-63.
- 권해수, 이재창 (2003).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귀인 양식 및 대처전략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1(1), 22-31.
- 권희경, 장재홍 (2003). 청소년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35-47.
-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0).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서울: 현문사.
- 배영미 (2002). 성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기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미혼모 사례. *학생생활연구* 24, 73-87. 춘천교육대학교 학생지원상담소.
- 백경희 (2004). 가정폭력쉼터 종사자의 소진 연구.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혜정, 조중신 (2005). 성폭력피해자 치유 매뉴얼. 여성가족부.
- 변혜정, 조중신, 현혜순 (2005).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 윤부성 (2000). 아내학대 관련 기관 상담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윤혜미 (2005).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과 예방적 접근. 아동학대예방센터 개소 5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22-49. 한국복지재단.
- 이광숙 역 (2001). 포커스 그룹 리서치. 서울: 박영출판사.
- 전영주 (2004). 가족내 성폭력 발생의 취약성 요인 및 후유증에 대한 탐색 연구: 근친성폭력생존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9(1), 159-177.
- 채규만 (2004). 성피해 심리치료(개정판). 서울: 학지사.
- 최윤미, 양난미, 이지연 (2002). 상담자 소진 내용의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81-598.
- Adams, K. B., Matto, H., & Harrington, D. (2001). The traumatic stress institute belief scale as a measure of vicarious trauma in a national sample of clinical social workers. *Families in Society*, 82, 363-371.
- Benatar, M. (2000). A Qualitative study of the effects of a history of childhood sexual abuse on therapists who treat survivors of sexual abuse. *Journal of Trauma & Dissociation*, 1(3), 9-28.
- Brady, J., Guy, J., Poelstra, P., & Brokaw, B. (1999). Vicarious traumatization, spirituality and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 survivors:

- a national survey of women psychotherapists. *Professional Psychology-Research and Practice*, 30, 386-393.
- Brewin, C., Andrews, B., & Valentine, B. (2000). Meta-analysis of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rauma exposed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748-766.
- Campbell, R. (2002). *Emotionally involved: The impact of researching rape*. New York: Routledge.
- Chrestman, K. R. (1999). Secondary exposure to trauma and self reported distress among therapists. In B. H. Stamm (Ed.), *Secondary trauma stress: Self-care issues for clinicians, researchers and educators*(pp. 37-47). Lutherville, MD: Sidran Press.
- Clemans, S. E. (2004). Life changing: The experience of rape-crisis work. *Affilia*, 19(2), 146-159.
- Ensel, W., & Lin, N. (1998). Age, the stress process, and physical distress: the role of distal stressor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2, 139-168.
- Figley, C. R. (Ed.) (2002). *Treating compassion fatigue*. New York: Brunner-Routledge.
- Figley, C. R. (Ed.). (1995). *Compassion fatigue: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ose who treat the traumatized*. New York: Brunner/Mazel.
- Follette, V. M., Polusny, M.M., & Milbeck, K. (1994). Mental Health and law enforcement professionals: Trauma history, psychological symptoms, and impact of providing services to child sexual abuse survivor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5(3), 275-282.
- Ghahramanlou, M., & Brodbeck, C. (2000). Predictors of secondary trauma in sexual assault trauma counsel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ency Mental Health*, 2(4), 229-240.
- Iliffe, G., & Steed, L. G., (2000). Exploring the counselor's experience of working with perpetrators and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 393-412.
- James, R. K., & Gilliland, B. B. (2001).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4th ed.). Belmont, CA: Brooks/Cole.
- Johnsen, B., Eid, J., Lovstad, T., & Michelsen, L. (1997).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non-exposed, victims and spontaneous rescuers after an avalanch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 133-140.
- Kassam-Adams, N. (1999). The risks of treating sexual abuse: Stress and secondary trauma in psychotherapists. In B. H. Stamm (Ed.), *Secondary traumatic stress: Self care issue for clinicians, research and educators*(pp.37-47). Lutherville, MD: Sidran Press.
- Kruger, R. A. (1998). *Analyzing &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Focus group kit 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Lind, E. (2000). Secondary traumatic stress: predictors in psychologis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 & Engineering*, 61, 5572. US: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 Lugris, V. (2000). Vicarious traumatization in therapists: Contributing factors, PTSD

- symptomatology, and cognitive distortion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 & Engineering*, 61, 5572. US: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 McCann, L., & Pearlman, L. A. (1990). Vicarious traumatiza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working with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 131-149.
- Morgan D. L., & Scannell, A. U. (1998). *Planning focus groups(Focus group kit 2)*.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Pearlman, L. A., & Saakvitne, K. W. (1995). Treating therapists with vicarious traumatization and secondary stress disorder. In C. Figley(Ed.), *Compassion fatigue: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ose who treat the traumatized*. (pp. 150-177). New York: Brunner/Mazel.
- Pearlman, L., & Mac Ian, P. (1995). Vicarious traumatization: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trauma work on trauma therapists. *Professional Psychology-Research and Practice*, 36, 558-565.
- Resick, P. (2000). *Stress and trauma*. Hove, UK: Psychology Press.
- Rosenbloom, D., Pratt, A., & Pearlman, L. A. (1995). Helper's response to trauma work: Understanding and intervention in an organization. In B. H. Stamm(Ed.), *Secondary trauma stress: Self-care issues for clinicians, researchers and educators*. (pp. 65-79). Lutherville, MD: Sidran Press.
- Rosenthal, B. S. (2000).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in adolescence: Trauma Symptoms. *Adolescence*, 35(138), 271-284.
- Schauben, L. J., & Frazier, P. A. (1995). The effects on female counselors of working with sexual violence survivo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 49-64.
- Schauben, L. J., & Frazier, P. A. (1995). Vicarious trauma: the effects of female counselors of working with sexual violence victi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 49-64.
- Son, L., Singer, T., & Anglin, T. M. (1998). Violence exposure and emotional trauma as contributors to adolescents violent behaviors. *Archives of Pa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2, 531-539.
- Steed, L. G., & Downing, R. (1998). A Phenomenological study of vicarious traumatization amongst psychologists and professional counsellors working in the field of sexual abuse/assault. *The Australasian Journal of Disaster and Trauma Studies*, 2, available online at: <http://www.massey.ac.nz/~trauma/issues/1998-2/steed.htm>(accessed 27 February 2003).
- Trippany, R. L., Kress, V. R., & Wilcoxon, S. A. (2004). Preventing vicarious trauma : What counselors should know when working with trauma surviv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1), 31-37.
- Van der Kolk, B., McFarlane, A., & Weisaeth, L. (1996).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 society*. New York, US: Guildford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06. 6. 15  
수정원고접수일 : 2006. 8. 7  
게 재 결 정 일 : 2006. 8. 11

## Counselors' Vicarious Trauma Experience from Working wi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Hae-Soo Kwon

Kim So-Ra Kim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Using a qualitative methodolog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vicarious trauma experience of counselors working wi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Eleven counselors who work wi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participated in Focus Group Interviews. The analysis of the protocols suggested that the counselors experienced body symptoms and negative feelings that are similar to the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y also reported discontinued or abridg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istrust in others, difficulties in sex life, heightened sensitivity to child care, and changes in cognitive schema. Howev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y had also positive experiences such as respect for inner strengths of their clients.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in the Korean sociocultural context where counseling service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are provided.

*Key words* : sexual abuse, counselors, vicarious traumatization, focus group interview